

文 諺 漢
河 陳 兩 門 錄

上 編



51915



90

Inches 1 2 3 4 5 6 7 8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河陳兩門錄上卷目錄 (第十回)

하진양문록 상권 목록 (제십 회)

- 第一回 河陳兩人天生配耦 瀟湘明月前程佳期
- 第二回 朱氏女釀禍中閨 河小姐賚書外館
- 第三回 玉珠投淵龍馬負去 花階洒掃鸚鵡來護
- 第四回 眞道士授天書講學 百華郎帶曉月逃命
- 第五回 陳世威讀書金龍寺 壯元郎錦衣還故鄉
- 第六回 河三奸伏誅世伯執法 梁小姐溺水百華用權
- 第七回 梁小姐娉幣交換天緣 梁義之廷尉就囚皇恩特赦
- 第八回 北海島小屋河伯謫居 紫霞洞古宅聖仙來訪
- 第九回 陳尙書逢舊綠半信半疑 河在玉擢壯元乃文乃武

- 하씨와 진씨 두 사람은 현심리필로
쇼상장밤은 달이 전정에 아람다운 귀약이라
주씨는 화를 규중에서 기르고
하쇼저는 글월의관에 전하다
- 육유가 못세싸지니 용마가지고가고
화계를 쇠쇼하니 일무가와셔보호하다
진도사가 편서를 슈어셔비오고
빅화랑이 서벽달을 띄고 명을 도망하다
- 진세위가 금룡사에서 글을 공부하고
장원랑이 비단옷으로 고향에 도라오다
- 하삼간이 버이느디 업디이 미세빅이 법을 잡고
양쇼저가 물에 빠져 미빅화가 권도를 쓰다
- 양쇼제가 폐빅을 서로 맞고 미하날연분이 쇼연이 잇고
하회지가 텅위에 나가 미황은 으트 특별이 놀라
- 북희도적은 집에 하빅이 구양살고
자하동엿집에 성선니와셔차다
- 진상서가 구연을 만나니 밤은 밋고 반은 의심하고
하저옥이 장원에 싸이니 이에 문과 요이에 두파라

登錄番	3205
分類番	
圖書番	

第十回

陳尙書揀擇椒房
河元帥勝戰江州

진상셔는부마에간퇴이되고
하원슈는강주에싸움을이기다

第十一回

陳元帥捷戰封蘇州伯
河侍郎自願赴西蜀亂

진원슈가싸움을이기미쇼슈빅을봉하고
하시랑이셔촉난에가기를자원한다

第十二回

河元帥胡王生擒而旋縱
陳元帥西蜀再降而既平

하원슈가호왕을실금하야도로노크
진원슈가셔촉을두번항복바다님의평정한다

第十三回

撫河公之雙乳陰陽始判
鮮陳伯之九疑婚姻強脅

하공의젖술어로만지미음양을비로소판단하고
진벽의구의를플미혼인하기를위협한다

第十四回

都元帥數罪副元帥被棍
蜀中亂纔平關東亂繼熾

도원슈죄하미부원슈가권장을맛다
촉중난을겨우평정하미관동난이또성한다

河陳兩門錄

上卷目錄終

하진양문록상권목록종

하진양문록상권

快齋編

第一回

河陳兩人天生配耦
瀟湘明月前程佳期

하진두사람은현성비필이오
소상명월이전정에아름다운과약이라

디송티종황데시에디사마디장군남정후하회지의자는세정이니디장의지출이라세디
명문거족으로남정북벌함과동도서정하며명만번디하고위진히리하야공열이우주의
덱히고훈업유희의현미되무로열도봉작함의공이일작단계의계를색거지식이절문
흙으로명철하거날상이그특이녀기스더욱그공을사랑하스봉음을극히하시고실중에
두부인이잇스니원비윤시난전님윤동전의녀라성안화되침어락안지리갓초와숙덕이
겸비하되늦도록혈속이업슴을단식하야공을권하야취를강권하니공이마지못하야
사랑쥬공의녀를취하니숙묘현미지식이오지질이총해하야공의뜻슬영합하더라쥬시
삼즈일녀를두고윤시또남녀를싱하니장자의명은영화요츠자난계화오삼즈난중화니
지실쥬시소성이요사즈빅화난윤부인소성이라영화삼형데미목이출뉴하니공이과이
하고빅화난인효공검하야물록을버셔나더라장녀옥쥬은윤부인소성이니소데란싱하
미하날를품슈하야성자봉윤이요옥골선풍이라성효출던하고덕형이겸비하야장강의
스덕이며문장이리두를압두하고천티만념이요요절절하야미목청슈하며진슈아미난
천티만요러라하날이유의하스한나녀선을진세에하강하얏다하더라점점자라미괴이
함이날로시러오나부모천만의중하야우리삼이비록현달함이잇스나불길지상이현저

하 진 양 문 록

하며 백화난복록이 완전한 면이와 오직 너야 난 너모달속 특이한 오니 흥안의 화를 면치 못
 하오나 성인의 괴상이 완전하니 엇지 과부 처이니 리오 부인은 원리 일월이 부족하니 필야
 녀야의 부귀를 보지 못하련이와 나 난장 초영육을 누리 고저하노라 부인니 답왈 엇지 공의
 일으심과 갖기를 바라릿가 그러나 공심지덕이 잇셔 주시를 총의하니 하공의 은총을 질기
 지 아니하더라 부々 난군 신지의와 갖트니 군니 중의하니 정으로 가군을 간하야 제가를 불
 의로 말고야 즌손을 거가 기 쉽다하니 후시 하공이 과실이 잇스면 총용이 간하고 평성이
 음이 문이나 지 아니하고 노복을 인의로 제어하니 덕화 건리에 폐이여 누 총송치 아니 리업
 더라 가문나 불행하야 료부인니 졸하니 년니 삼십이 제라 백화의 남미다 강보에 잇스니 공
 이 불승이 등하다가 상례를 갖초와 영화동으로 시전하게하고 주시의게 남미를 부탁하난
 말이 극진니 간절하야 반다 시은혜로 칭하니 주시 비록 불린 암미호위인이나 공의 뜻줄영
 합하야 분부되로 시행하되 심분조심하야 아희들을 지성으로 구하야 기르더라 이러구려
 백구과 극하야 잇셔 옥주소의 춘광이 심여 제라 공이 비록 주시를 지극 후디하니 일점의
 료시싱각이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야 미일 탄식 불이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자녀를 차례로
 성합하고 총부 료씨 차부리시 삼부진시키기 곤산미옥이 요월궁항아라 금분모란화야
 참이슬의 조로를 먹음어 아람다 오미금세에 디두하 리업더라 차시 옥주소 점점자라 미
 괴이한 골적과 화려한 풍되 날노 식로 우니 공이 괴이하야 불적마다 문호를 보전할조난 차
 아라하야 료부인니 보지 못함을 책년지삼하니 주시 겁히야 첩하나 공의 위엄을 두려함구

하 진 양 문 록

임분하더라 공이 된서하 미등한 처아 니 리요하며 진공조의 손을 잡고 니 당으로 드러가니
 진윤리 부인이 디경하야 이리 답례하고 좌를 정하니 원리이 소년은 전남악 주자스 진원
 경의 일자라 진공이 세디 명문이 오본디 락양인이라 청검정직하야 한시 급암의 풍력이 잇
 스니 상이지극네디하시며 도야 공경 칭복지아 니 리업더라 언논니 준격하야 티즈덕소를
 죽일씨의던자로 하스장스 티슈로 니치시니 공이 부님삼년의 현명이 진동하야 티종이다
 시악 주자스 로승비하시니 시에 악 주홍 황하야 처처의 도적이 봉고하 고 백성이 이산하니
 자사공검이 민하야 날노 덕을 닦가 백성을 적지 갖치스랑하니 우순풍조하야 백성이 락업
 하며 도적이 화하야 양민이 되니 송성이 도로에 진동하야 남녀서로 길을 사양하디라 그
 부인양사난디가 잠녕의 성출노또한 사덕이 겸비한 숙네라 저덕이 추러외모하니 부부화
 락하야 슈십년의 여러즈녀를 상하고 슬허하디니 일々は 부인니 일몽을 어드니 오운니
 집을 두루며 장성이 품에 드러적되여 동방에 자옥하거날 놀나 쳐다르니 남가 일몽이
 라인하야 잉티하야 심사삭만에 일기 남아를 싱하니 가 위금중지봉이 오슈중지린이 오어
 중지룡이 오인 중지선이 라관 광적막 불경란이 러라 삼스세되 미총명이 비범하 고문장지
 덕이 일취일장하야 발호기 유하며 출호기 취라 점점자라 미인 효품적지심과 쇠락업일지
 풍이 일디 영웅이 오당 세옥지라 풍운은 양조화지리와 료도 삼약과 오 hing 팔진지법과 고리
 사어문스를 무불동지하니 료네 등지는 죽히 괴록할거시 못되더라 공과 부인이 총의하난
 중의의심도 품고 그 괴지를 간여제하며 일흥은 세벽이라하 고자 난 현피라 심세너 무미

지용이 겸비하야 제제 안민지제와 보국충군지양이 있더니 차호라 남아 영웅이 초궁후달
 은련슈고연이라 면저 양부인이 그제하 덕세벽이 연출하나 집상의례절의맛게하며 부친
 을위로하더니 홀련공이 또득절하야 벽약이 무효하니 맛참이 지못할줄알고 님종의공
 즈의손을잡고 슬허왈싱은과애요사난귀애라 혈마엇지하리오 마난내고 호일신을말
 리이역에더지고 쌍망부모하난지경에 이르니 너의척신이 누게의지하리오 너집이본디
 누디독신으로 너일신분이라 셤디절스와 문호홍망이네게온전이 밋쳐더구나 혈유지신
 으로성인치못함을보고 죽나니 마음은구천의도라가나 셔지못하리로 다궁달도명이잇
 나니 종스부락이너 썸만밋고엇지 눈을감으리오 장우일성의명이진하니 세벽이봉련지
 동을당하미 혼절하야 신과 암석하거날진공이 소경의다시귀운을불며 눈을열고 세벽을
 어로만저척왈누디종스와일문지스를네게부락하거날네쳐릿듯과례함이위절지명을
 도라보지아나 흠이너난후사를도라볼지어다 나난귀위한죄를지고도라가거니와네
 만일정기를손상하면나의죄를더함이라 너는부디잘보전하야 나의영혼이싸아리선조
 를뵈을낮치엇게하라 하고인하야 엄절하니 세벽이 지비슈명하고 노복등충선주영이모
 다진공의유명을바다공조선양홀부락을바든지라 일제발상하니 진공의년니 삼십오세
 라 세벽이이회류체하야 서서 혼절하니 충선등이 붓드러구하야 위로하며 레로써 초중
 범절을갓초와그릇함이업고 악주괴총산에길디를신복하야 양위를합장하니 난리방관
 과사방조격과종족천우들이 누아니 불상이너기고 괴특이너기리 업스며 선공부부의인

덕을서로이싱각하고 상하만인노예비라도모다노리하며 눈물흘이지아니리 업더라 세
 벽이나문가산을거두어조석지전을정성으로 밋들고노복을의로디접하니 일동로소남
 녀모다깃거하며 칭찬하더라 세벽이 서서를힘쓰고례악을관습하니 공부더욱성취하더
 니 언마만의여역이디치하야 근리노소만니 죽고망하며 노복이다스망하미가 지랑진하
 야 감장한후의도싱할모척이업난지라 세벽이 주야호흡이동하다가 하로난집이실화하
 야 남은집을다살루고겨오스묘를뵈셔묘전에봉안하코의지할곳지업셔 호통곡지하니
 경식이참담한지라 벽성들이불상이너겨의식을붓더니 본디인심이강악하코괴황이심
 하되공즈의효의를감동하야 괴갈를면하나 그간고함을기록지못할너라 회음후의괴식
 어표모하코 슈육어과하함을아니터라공즈식양이과하야 일두식일근육을능히먹고또
 한일두주를사양치아니하나 다어려이너기더라 성이여초궁관이 지나다가 혈틸업셔이
 에지향업시 두루노라강호에류락하라 하고 혼곳에니르니 경기절승한곳의한로이니 단
 쇼를불며 무릅우의현금을언고쳐량이희롱하거날 세벽이듯다가해오디 그곡조를비록
 통치못하나 인간곡조난아이니 장초비호리라 하고나가 절하코 엿조오디 동즈비록
 저조업스오나 한번비호기를원하나이다로인왈네엇지이곡조를아난다 세벽이디왈
 엿지선곡을누지소동이알이잇고로인왈선곡을엇지염양하나뇨 세벽왈쇼동이여간례
 악을넘엇습기로속악곡조난디 강짐착음음더니 제로인의곡조를듯조오미인간의곡
 조난아니온코로선곡인줄아음거니와 감히못습나니로인존호을듯조하나이다 너천

명을아라 무엇하리오 다만금적곡조만비호라하고 문득저를들고 손가락 빼난 법슈와 거
 문고를언고 빼난 보슬를 디강이로며를음보적을넘으로외와가룻치니 총명한인지가엇
 지쳐닫지못하리오 문일지심하고 견일지벽하니로인니 총찬왈네이월석을희롱하야
 쇼를빛겨잡고악양루을나가셔한곡조자아닐제그소리청아하야한풍이흙구름을거두
 난듯공산의청학이부르난듯고루의뜻소리가풍편의멀이들어공산자규소리난등소소
 리를희롱하는듯하더라 슈유의일관네나와관찰스분부니의저부난손님청하라신다전
 하거날세벽이항직하고문왈관찰사취시요관녀답왈디사마디장군관찰스하상공이로
 소이다세벽왈나난유직초동이러정쳐업시소요하거날하상공이니성명을아지못하난
 디엇지부르시며니엇지또귀인을보리오하고연파다시저를잡아여상이부난지라관예
 도라와그연유를하공게고한디하공이다시청하라명흔디관네다시나아와공순니절하
 고고왈상공게서공즈를비록상면치못하얏스오나일곡봉적의귀회쳐량하오무로동시
 직디의서로만나회포를피고저하야연석의피혀유비를날여올회를물고즈청하오시니
 쌀이가시미조홀가하나이다세벽이마지못하야나가와습을고하라하니사네죽시나
 와청하거날세벽이청삼을슈렴하고단정이거러나가절하야외오니하찰사답음하
 고갈오디그디성명은무어시며그디부천명쓰난니신노세벽이몸이러다시절하고디왈
 소성은전악쥬즈사진모의아들세벽이옴더니가문이불행하와조실양천하옴고혈々단
 신니홀노노비를거나리고사옴더니여역의여러노복이다사망하고겨우소성이성존하

와잔명을보전키어렵삼더니하날이저양을나리스일설이화제의손실하고가지업셔넌
 리민호에괴석하옴다가전전유리하와이곳에이르렀습더니금일디안의부르심을남사
 와이갓치관곡히무르시니소심외괴하야이다언파에라루하거날공이그말를드르미심
 히감스하교삼년즈츠하더라하공이자셔이안물을보미원비응요며호두용안과봉목와
 잠미의신장이팔척여오소연니산천조화를실른듯하교홍금에웅호영길지저를품은듯
 하며언어여슈하교어성이여외하니하공이심중에암희왈니평성녀아의비팔를구하교
 자하되저런사람을만나지못할너니오날하날이이사람을저서하심이라니이사람을동
 상을삼으리라하교성을티하야왈그티로부를괴이지말고발키이르라하니소년니비
 사왈타향의류락하야영정고어린아희육아지등을품어묘하의셔삼상을맞치미능히
 의탁할고지업난지라경성장상셔의구씨를츠자가고즈하오나같이요원하교낭락이공
 허하와가지못하교강호의무가직이되어이싸에니르러인지성하무로모든선비를싸러
 노더니금일우연이월석을티하오미하쥬방천니아람다온저라슈인의회포더욱비황
 하와풍악을버즐삼아회포를붓치옴더니티인이부르심을인하야비알함을엇습고무르
 심을받조오니엇지궁박한소회를은익하리잇가황공하야이다공이청홀의쥬연왈그티
 회포여인비목석이라엇자감오치아니리오그티의외구선공으로더부러조소로교되잇
 거니와한번날행함으로부터스망한소식을드른후로만리의음신나실쳤스나다시보저
 못함을한탄하더니금일그티를보니반갑거니와그티외구상셔공이죽은저오리니그티

을나갈슈업스리라성이듯기를다함미상호락빅야저두무언이라가이옥이안갓다가
 장우단탄하며길이정신을가다듬어왕장상셔괴세호신지얼마나함시니잇가하공왕첼
 팔년되었거니와전년칠월의상셔호얏습거니와이도시왕스라공연이올회를과려하야
 쓸티업스니관역하고우리만나미오날셔화나함어엇더호요군의십삼제신장이저디지
 속성호요티왈련품지혜는더자라지못하야사시오형의센흔괴력만장성호오니불승민
 망이로소이다하공이듯고다놀나더라세빅이살어갈오티안후지덕을납스와이공척호
 온인성궁항에건지고이쳐럼무이함시니불승황공호도소이다성의션천과션의속과정
 천호심이이어타인이라함시니더옥이반갑고깃부미션천을뵈오나다름이업스오며
 이곳의와맛잡지못호오니죄만사무척이로소이다하공왕나남디스마디장군관찰스라
 맛참황조를밧즈와순형현읍호난관찰스되여열읍의순람호다가우연이이곳에역로되
 기로금야의루상완경호다가그티를뚝밧게만나거이와군의등소곡조를드르미여지련
 상도요불지인간곡이라한번시험할소나진성이퇴손왈미거소동이작는으로부는거슬
 엇지죽히드르시리잇고공이우어왈슈연이나우리회한니드르비잇스니사양치말나좌
 중이모다권호거날진성이마지못호야형적일성의아하양하야약청풍지축소이요
 의장련지금학이라황홀초산무산이요의미옥호호지로다이인간지여몽이오나련상지
 장성이라불도슬지키장호야니일탄어남훈이라결쳐정기경치호야응일광지옥페로도
 비기인지옥성이면속가독이위지리오사일일지무스호니여우로지키공이라거일히추

가려호야영안락부평성이라형금부견종지호니하사쳐쳐가금제니라취필후에적을더
 지고다시곳쳐비스왈조절지성으로공연이장즈의청금을더러이니죄민호야이다공이
 청파에당연경야문알군이연충지의어날어디셔그곡조를비흔고늬불의금야에형견경
 려위디지저로도다호고그등을어로만지며중의호야선복일습을명호야주어납하고인하
 야머물고가기를허차아니호야종야도록담화하미고금력디와흥망득실과전진승피와
 경리사체문답에이체함이업스니공이디희호야취흥을싸라진성이일슈시를어더니
 평성의지회를쓰게호라노라진성이저삼검손타가마지못호야글제를청호니공이웃고
 소상명일야상친으로제호라호디진성이성각지아니코화전의취필를잡아일필휘지호
 니자々쥬옥이오문불가점이라모다보니아얏스되

상강에물결빛슨사름의근심을잇글고

湘江波色惹人愁

강적흔소리가만고가을일너라

羌笛一聲萬古秋

초협의구름은철리밧게도라오고

楚峽歸雲千里外

진련의달은오경루에발갓도다

秦天明月五更樓

이제밤어리는참드른일이오

今霄御李眞稀事

이성식형은과연성흔노름이로다

此地識荊果盛遊

취하청풍에청히가죽호니

趣下清風聽咳足

이성차외에다시무엇슬구호고

微生此外更何來

공이 찬왕이 논성현충절지도니 초년은 비록 곤궁하나 후일은 뒤성남훈할의상이라 군은
 괴로움을 칭까지 말고 날을 짜라 감이 엿더는 노니 군가든 인지를 엿지 못하야 말분망식하
 더니이 제군을 만나미지 원니 필이라이 제죽은 들무삼한나잇스리오원권된그되는나의
 아람다온의약을 어기지 말나군의의향은 엿더는 노진성이공슈티왈소성이전로의지향
 업지다니옴거날된이니어협비너기스부르치고또고의를심양하스이갓치무홀코즈하
 시니은혜빅골반망이로소이다공이희안니용々하야왈하날이군을니심은뒤송성덕을
 도스심이라니군을어드미빛권된고기물러어듬갓고룡이나리남갓트니무삼근심이잇
 스리요인하야말를병하야올나여러날만의경스애나르러진성을본집으로보니고결하
 에나아가봉명하니현제희식이동안하스어츄를상스하사공을표하야식음을더으시
 고각직을종을후스하진디공이스은하고집의나와외당의드러가먼저진성을위스하고
 니당에드러가니부인나마즈레필죄정후에유주를갓가이안치고등을어로만져우어왈
 데날를싸나엇지견될다부인나악년왕상공이엇지첩의밋지안는말삼을말비시나잇고
 첩이엇지유주를못견디게하오리잇가공왕부인이엇지우연한말를고이히하시나노니
 마음의항상저를오리못보면견디기어려은교로저도크런가념녀는말리로라하교쇼
 연이다른말로위유하더라하공이이후로항상기부물이기지못하야삼즈를디하야진
 성의지덕을말삼하며서로관후하기를당부하교빅화를명하야진성과갓치놀고슈의하
 기를청하며형으로디첩하라하교츄씨의게당부하야후디하라하더라진성이공부를힘

쓰며시를를속습할시빅화를교훈하교항상셔로써나치아니하니문하의왕티하난공후
 이로치지라도아니층찬하리업스며가중노복등도막불경복하교하공은사랑함을삼즈
 에서총의합이더홀듯하니영화등이유씨교유로한가지로모희면비웃고서고하야미워
 하되하공이과이함으로사식의발비지못하교외친니쇼하되진성은진짓다정함이전일
 에서더하논지라영화등이또한것호로조와하야교게기흔듯하더라진성이미양글니
 리는결을의빅화로더부러음풍말일하며전의아는곡쇼로금슬상황을희롱하야각회를
 소청하니차시인리방관과상하노복등이모다방황유져하며혹질기며혹실허하되특별
 이유시모즈그심중에불락하야외향의달를적어만흔지라공이항상념여하야자의하교
 후디합이점々김고유주를더유두구기며불상이너기더라공이하로난석양의후원에완
 보하며침음출타하더니문득서당으로셔오열한곡도들이거날가만거러나아가니진
 성이홀노금현을고르거날일껏지안니코뒤호로드러가셔々듯더니그쇼리비창하야능
 히밍상군으로하야금을개하리라그곡도에일넛스되런디가너르다하나일신이난용이
 요산하가만타흔들세류를비할쇼나오흐다혈혈인성이의지할곳지바히업니황던니이
 감하스후덕에벗치시니오날은리평하다후일을어이하고고국을원별함이어척을당하
 고명절이넘시하되선영의것천골를누라셔금벌할고성동이갓가오되진작이무로하
 니명조사티의승사를누라할고만리종적이효의를못하하니인간의죄인이라엇지면관
 저종사로인지지츄우를어더하야블고곡도를맛치미금현을것고현연하루하니또한단

식하야 소리나 난줄세 닷지 못하야 현연산보하다가 성의 거동을 보고 더욱 장우하더니
 옥이싱각다가 위연회고한즉하공이 뒤에 섰난지라 급히 괴비청죄왈 소이 괴회를 이 괴지
 못하야 금현의 탄식함으로 디인인압히 거만함이 황공무지하야이다 하공왈 고시에 일
 녀스되 추풍이 냐하이하니 괴심이 자연이라 하고 추풍이 냐정슈하니 괴이 최선문이라
 하얏스니 장부비추는 고금상경이라 하물며 군의게는 더욱 비나더 할지라 무삼그르미잇
 스리오 모로고 못행한례는 알고아니 행할과 다르니 괴려치말나 그러나 군의게 한부락이
 잇스니 군이 즐겨드를 쇼나 진성이 지비손스디왈 소아디인의 하히 갖튼은혜를 넘스외이
 릿듯슈양하옵시오미 소성이 지성지은을 넘스온즉 맛당이 사지여 부하을 지라 엇지 괴
 할이 잇스오리 릿가하공이 청과에 추연디왈 네빅년슬하를 근심하얏스니 네 엇지 닉뜻즐
 모로나 뇨금일이야 일으나니 닉맛당이 숙녀를 천거할거시니 네마음에 엇더하뇨성이 소
 이디왈 성이 누년류락하다가 디인인거두심을 넘스외고 당의 의식이 즉한지라 연이나 전
 정을싱각하오니 심스자연비절함을 좃츠금슬를 회롱하얏습더니 하문하심이 이에 밋스
 오니 무삼소회시니 잇가 정문기의 하나이다 공이 침음양구에 갈오디 닉두들둘두엇스니
 맛설은 죄모괴질이 심분비범하야 여중군조요엿섯자녀 중특이하니 당세의 독보할지라
 아비되여 조삭을 길리미우자라 하련니와 시속의 괴연드물지라 그 비우의 근심이 겁흐나
 부귀궁달를 보지말고 저하야 저외 갖튼 비우를 짝하야 평성의 저바리지말여 하야련하
 의 광구하야도 만나지 못하얏더니 다행이 너를 보미고 단함을 불상이 너겨녀아의 비우를

위하야 집에 다려온지 반년에 지우금발설치아나타가이제야 네게 의탁고저하나니 용납
 할소나 성이 디왈 영영고고흐몸을 나무라지아니하시고 존문귀딕옥녀를 허하시니 소성
 의바라미넘치고덕문디규에 육되미만홀가하나이다 공이 완완이 소왈 닉 엇지 헛말노군
 을 회롱하교속이 리오니 녀아를 길리미아나라 맛당이 락년을 괴팔함이니 다른 녀여말지
 어다그러나 군나 밋지아니 미잇스니 닉아를 보고금석갓흔마음을 정하라 진성이 실석
 디왈 소성이 엇지 밋지아나리잇고다만 디인의 남의 우음을 넘스실가함이 오또한 남녀유
 별이지극하오니 성례네전에 디면함이 실례라 엇지 하오리잇고 세스는 막척이라 호스
 다마하교가 괴이저라만 약영윤삼형제 좃지아니면 이는 소성의 붓그러오미오귀규의 참
 덕이라 엇지 경량이 언약을 허하야련정지륜을 밋고저하시나이잇고 공이 청과에 점두소
 왈 괴지라 디장부맛당이 일언의가 학이오 일언의가 괴라 엇지 졸졸이 정하리오가 장군의
 말이 마당하도다 하교 일변사여를 명하야 주효를 준비하고 사즈를 명하여 년소노복등을
 계전에 서사자로 하야 금잔를 드러 차례로 진성을 권하야 왈 오날네 옥주와 진성과의 혼하
 앓나니 다시 여러 말이 잇스면 닉아들이아나리라 하교 비화를 명하야 두번 잔을 권하야 지
 이지정을 표하라 하시고 년노복을 명하야 차례히 주하라 하니 영화등이 심중의 앙부
 쾌하야 왈 맛당이 부귀옥랑이 잇셔의 혼하심이 늦지아이커날저일기결아를 중의 하야 지
 자지이 하서는 옥주씨로 혼비함이 불가하교 그 주씨모조로 더부러 숙덕이며 비소하
 더라 진성이 주순을 맛친후 천이 잔을 드러 썩러나아와 하공게 드리고 제비스왈 닉의 후

은을무궁이 남스와 거두어 양육하시고 또 동상의 처제하시니 불승감송하시니 다 공이 잔
을바다 혼연니마시고 술을과하미크게기타일에서더중의하더라 공이 님당에드러가
주시를보고 옥주와 진성과의 혼결약함을말하니 부인니 짐짓 모르난체하고 거짓경아문
왕송공이 평성중의 혼녀아를허다 왕공저열지식만흔다 말히여정하시지아니하시고
저일기거려 혼궁사의 비필을정하니 다 중심이엇지취중이아니신잇가 공이 작석척왕부인
의말이엇지규중에서실말삼이리오장부난언가 단금석이오부인은심성어절지성이
라하시스니 님엇지취중으로규중일미아를남의게회롱하시약혼하시오다시그런말삼
은이변에전치말나하시고사미를셀치고나오거날슈심중에디찰하시그설를궁박한미
지스의게동혼음을다행이여기며일번저모즈의마음의어그음을양々 불열하시진성을
암흥박디하시전일보다더불관나디점중되하공이너모구중극이하시미양찬양을넉에
싣치지아니하시니주시모즈비류사석지아니하시나자조와형의낫남이잇스니공이그러
물혹의심하시있다감진성을보면희석이등안하시진성이또한그형지를짐작하고암년
단왕니하공의슈감으로이러듯결약하시되과엄하시고미사의법년하시나필시되룬
을그릇철가염너과다하시라일々은공이주효를작만하시고영화등스즈를압히열좌
하고연노문인을디하시전석의포장하고진성으로더부러거주상속하시술이반취하시
공이 혼연과좌왕금일이길신이라니우아와진성과의 혼한지여러날에오허려신물이잇
스후에날이머러도의락이왕전하시되라니네지필년을드리라하시고진성다려왕군의무
삼신물이잇거던남빙네페하고혼서를써동봉하시니미아의구든언약을표하시라진성이
미급답에영화등삼지비고왕야야는잠간기다리시미조할가하시이다하시더라

第二回

朱氏女釀禍中閩 河小姐資書外館

주씨녀화를중규에비지고 하소제글을외관에전하다

하공이 작석왕유남유녀하고진시호연이오시호과라무어슬다시기다리々오진성을취
축하시쓰라흔디진성이비왕니정함이잇사오니현윤삼형과갓치하시미조할가하시
다하시유예하시날하공이여성척왕니항상진성을디장부라충찬하시더니금일소설를
보니우치하시로다니일명을두엇거날무삼의아를품고주저하시노진성이마지못하시
척필을잡을시공이소왕군의동성지천니업스니군의종조장스모로중명하시라하시날진
성이일필정사흔후의랑중으로서척보옥환를니여양슈로받스와지비하시고드려왕이신
물이약소하시나소성이누계상전지물이니빙례를표하시이다공이디회왕셋々한례물이
로다술를나아오라하시차서로형작한후의친히혼서와검신물을거두어가지고소저의
방계에니르니소서맛참서안을디하시모시편을외오미성음이청아하고향은니유량한
지라공이날하시거려이우이듯다가깃부물이고고문을두다리니소서척을것고공순
니이러절호야맛거날공이좌정후혼년소왕하날이너를니시고반다시씩잇슴을두루구
하되맛지안터니악주시스진원경의독남제비의고지디락과풍취골격과문장지덕이너
와상적함으로비록당금은영감하의혈유무의하나후일왕공장스지의외공기던하할상
이기로금일정혼례빙하미니평성지원을맛쳤스니이빙물을간슈하시후일가기를밧게

하라네년괴이리므로두히지나면성례길흔하리니진량은네근조로알고너난진사랑의
 집머나리되돌알나소져저두경청하고흔셔외빙물을바다장염의간속하고다셔셔슈시
 좌하거날공이디희왈아람답다네이제는네아람다운비필를구하얏스니죽어도눈을감
 으리로다그러나답빙을쥬어상신을삼게하라소져그찾든철보옥디를글너드리니공이
 흔연출외하야옥디를글너진성을쥬어왈이신물은너아의가졌던거시라흔괴잠간먼교
 로이신물을가져셔로잇지말고져하야진군을쥬노라한디진성이복수비스왈원너흔셔
 의이런신물이디단치아니하오나디인니쥬시니사양치못하와밧잡나이다하고랑중
 에간슈하고연석을파하미문각방관니모다하공의턱서잘함을치하무슈하고흔희담소
 하며후터도라가니영화등삼인은심중의암암불락하야니정에드러가그연유를져져이
 쥬시게말하니쥬시안식이참담하야교쥬를어로만져왈너의디애너논외디하야턱셔하
 기를이렷듯유란슬레하는도다영화등왈성너의허다명환가량이만겨날바리고구타여
 저결석하는거슬먹이코납히고아달셀보다다사랑하야옥갓치흔녀아를쥬며짐작건
 된만거흔거지를모다기우려허비코즈하시고옥쥬만사랑하야온갓가물을모다옥쥬의
 거시라하며진랑의지삼출유흠을괴득다하야적신을동상에두고흔슈가산을다셔작만
 하야가져가절반이나업셔절거시니무어스로또옥쥬만치하리오그남져지로우리분져
 하야봉사승양을엇지하리오쥬시더우분로왈너아못조록흔괴를헤방하리라영화왈
 부친니성되준엄하시고님의남빙셔지한일을엇지되파하리오그다만한게교잇도다만

일제우문과성친하면원간부친과총의극진한지라빅화와제스를헉헉하리라우리들은
 부친이항상눈빛게보신즉우리가권을잡지못할지라급히도모하야결천의히함만갓
 지못하다흔디종화왈불연하다아직은제문각이라비록부친의과총을넘으나무삼권이
 잇슬거시라먼져히하리오우리소디구박하면자연셔어하야부져못할거시오괴운이쥬
 러질거시니외디를심히하소서모다동심하야공의보는디여스roi하나공이조사외분
 쥬하야집에잇슬씩씩고디씩쥬응의분요함으로진성이혹손이업고조용하면나와외고
 맛참과밤으로문안만하니공이본디소활한지라너스를아지못하고지어의식지스는망
 연이모로니이러무로진성디접이박디하야조셔이양에차지못하고쥬육진미되갓트
 되한번도쥬지안아적은밥과여른의복이한셔에맛자아니하고영화등도츠지미업셔만
 논즉언론하마업고녕락하되진성이모로논듯괴한의괴로움을참고가지록글너기를부
 즈런니하니빅화공즈쥬야동쳐하더니일셔은공즈성을디하야우으며소왈우리미제한
 갓용모득출할뿐아니라헉동쳐신이비할씩업셔가중이어진스승어듬갓치하고문장저
 사고금문인에지나되갑히감초와사람을외지아니하나이다형이조만의상견할거시니
 소제스례를바드리라네오허려말이션후도착하야다시하져못하나이다성이숙너파망
 지리라하야님스갓은숙너명화를원하더니하소져를정흔함의홍중의의려밧쳤더니공
 쥬의말를드르미만심환열하야왈네다만영미시져를어더날를빌손나공즈왈져져글
 짓기를흔니아나하되디인이글제를너여저으라하시면저어드리고즉시차즈감초나니

엇지어드리오니외와들이리다하고일슈시를읽으니자자이신묘하야온중하고향념이
 괴이하미성이탄왈너모말썬싸혀나제의무드지아이니도로혀길죄아니로다글를드르
 미사람을뒤흐듯하니아지못게라어니날만나리오너모식々하야장부의게종요롭지아
 니리로다하더라일일은공조진성이글를짓다가여척한스이에글를거두어미제의침실
 에니르러글를쥬니소저바다보다가옥안을변하고왈이엇던스람의소작인고자세이이
 르라공자왈엇지글렐리잇스리오시의엇다하관디놀나시나잇고소제정식왈네날들이
 돕게너기나나이글지은거시방탕하야그옥호출정을품어숙녀구함이착급하고문장이
 호활하야옹장하고심원하야강호를헛치고어중을향복박는풍력파리벽의청풍시를
 허랑이너지고히스천의문장을글이너지리라문치빛날뿐아니라공후장상의체격이잇
 스나셋지귀불상하야쌍연니분비빅운간하니혹비서산두요혹유동히변이라하얏스니
 연분이호터질중조요네제귀는한번날미날키봉필을답도다나라가며나라오미바람아
 구름을웃는도다바다출글거구만리장던을향하는도다하니이날일만장상을거나려공
 업을세우며출장납상하야능히리음양순스시할격이니이엇던사람의소작이요다만은
 중한군주의글이니속이지말나공조바양으로쇼저의지식과명감을탄복하고그뜻즐듯
 고저함이러니이러듯신명하시니쇼제감히괴망하리잇고과연진형의호걸괴상이오단
 정든못하니이다쇼제정식왈네비록어리나거의례를알지라감이외인의글노써규중예
 드리오며또혐의지간의더러온글를날를보게하니동괴지정이아니라삼가조심하고

다시그리지말나공자황연사죄하니쇼제왈네삼가조심하고니말를명심하야전치말나
 공조가만니항복하고나와성을보니잇세진성이도라외글를추지니간디업는지라고히
 이너지더니빅화우음을먹고도라오니성이문왈네글를도적하야간다공조웃고사
 미로서너여쥬니성왈네글를취게죄노저삼필박하야무르니공조연유하고또진성을사
 랑함이미스들은의함이업는지라쇼저말를다전하니성이그총혜정디한말를마음의한
 탄하고글이도시불길도다함을듯고흔스쳐려할가념여하더라잇세영화등삼인이쇼공
 조진성을싸로물로하고증념하니빅가지로히할뜻시잇더라일々은공이조회를맞고도
 라외당에좌정하며화괴자약하야쥬시로더부러좌를년하얏더니부인니념용갑슈왈
 첩이드르니문하인진성과옥쥬의흔스를정하시고피쳐신표를바닷다하오니첩은성각
 건던일이맛당치못하나이다공이정식으로왈부인은이엇진말이노진성이비록초々이집
 에잇스나도정디신의자제로아직곤궁하나진짓디장부의괴습이잇고반다시후의귀이
 될지니엇지이제곤고하나념할비리오부인은다시어린말를말나설파의안식이씩々엄
 정하나부인이정식디왈명공은본디제의를두시나저문하당조를옥쥬갓튼절륜미식으
 로쌍을하미이논답이봉을취함이요제혹조남신현달할진딘담관낙세하야명공의죄로
 하심을능만방조하야필박하고화영등을경천멸시하리니이논은반위슈되오리니이제
 다른곳쥬문갑제의왕공후빅조제중옥모군조적지안니커날명공은하방의류락하논형
 결를다려다가양육하야사회를삼으시면이정의논할비라명정현처함이아니오옥쥬

의비필은이러듯밤비구하시고교주는성각도아니시니명공의자이편벽되지아니리잇
고인과의소안이연화갓고옥성이낭々하야아연한화괴사람의마음을현혹케하니공의
처음로석이출설갓트여우어알부인의말이엇지소되하노진량은관후군조라오직지
금궁하나타일공운의길시를만는즉엇지일신만영귀하리오스군보국하야제제안민지
약과총명지혜는동중셔와당시과분양을부러야나리니엇지날들이드며조정을통권하
리오부인의지략이니게밋지못하리니엇지불길흔말를하야흔스를해짓나노진량이비
록단아한군조아니나지식이명달하고위인이정덕절속하니시속경박적아니라엇지
여식의침익하며옥주는여중군조라남조를미혹케하지아니리나다른염녀업고다만여
아유약하니나아츠물기다려성천코조하노라하니쥬씨의여츠지언이것츠로옥주를위
로함이아니오하벽이쥬씨모녀옥음을동시쓰리는줄은아지못하고다만진성을경천이
여기는가역제할싸름이오간정을모로며괴식을살피봄이업시옥쥬와진성으로은은이
과익함이저모조의식힘을도도니가히한혹하더라츠시쥬시모조양양조득하야진성을
먼저음히코조하야썬를베푸더라어시에교취진량의풍모를한번여허보고황홀참차
하야불승사모하야심식권권하고의견이초조하니가만니성각하되부천이이갓튼괴남
을갈히여옥쥬의평성을절겁게하코나는용인속조의게속고조하시니너엇지분원함을
참으리오가히진성을너먼저스동하야부부되고괴모비게로옥쥬를업시하야후환을제
거후후의근심할비잇스리오반다시저로더부러평성을절겁게하리라성각이이에밋치

미날노음심이조라문득일계를성각하고름을여으더라어시의진성이저지에잇셔독셔
여가에록도삼약과손오병셔와사셔삼경을잠간정동하며문무범비하나왕희지의필법
과사마천의문장을묘시하더라이러구려영화등의박디날노심하니진성이심회를져하
야하소서외가괴를순처못홀가근심하더니일일은하공이쥬효를보되여괴회를위로하
는지라진성이그은혜를불승경복하야술를디하미잇셔는추칠월망간이라풍청월박하
야우인지우하고락인지락하는지라연하야이러술을마시미쥬효이도도하야금현을나
와희롱하며흔곡조를조아니니그소리요랑쳐창하야가히사람으로하야금마음을동하
는듯하더라술이디취하야금현을물이고야심한술쳐맞지못하코흔침하야누엇더니문
득몸을흔드러셔오는사람이잇거날성이겨우취안을몽롱이떠보니한미인이록의홍군
으로갓가이섯거늘문왈너는엇던미인이완디엇지에이르러군조의가미를셔오나노
기너디왈소첩은너당초환이러니우연이이곳에지나다가보오니상공이쥬야풍한의야
괴심녕하온디홀노는간에누어게시니귀체만다시상할가함으로능히그져지나지못하
야당돌음을잇습고방중에드러가취침하시물청하니다성이그천성이특이함을가이
하야정심후의즈셔이살피보나잇썬술리쳐쳐오지못하얏는지라미안의절제이용이출
풍의웃느니라정신을진정하코소리를나직이하며자셔이보니절제미식이라일적풍상
의골몰하야미식을보지못하얏다가무망중경국지식을보미장성남아취후풍정이발하
니양구속시의흔연소왈내가쥬가복첩으로나의실성을염하니가장감스하거니와네년

치와 명색을 알고 조항 노라기 녀 비스왈성언을 하 감당이 리잇고 소첩의 천한 나 이 이십이
 못되옵고 겨우 십삼세 오명은 교량이 니 일직 한림 상공의 정실 위부인 타 하시 비로 소이다
 성이 함소항고 문득 그 손을 잇고 그리거나 며 월 다키 리의 무류함이 심하 더니 금야의 날를
 위항야 잇슴이 엇더 항뇨기 녀 손을 썰 처 거 날 성이 소왈 네 날 갖든 호남 조로 일야 동속함이
 히롭지 아니 항니 사양치 말나 언파의 잇고 러 방중에 드러 가지 침금을 퍼코 미녀로 절기
 디 풍정이 무궁 항 더라 성이 소왈 다키 중의 드러 가 녀 식을 천히 하고 몸을 보호하는 도리 아
 니 라로 야 일를 아 르시 면 극히 미안 니 여 기 실 비 오 다키 또한 무안 할 지 라 모로 미남을 알 게 말
 나 교량이 허락 고 드러 가 니 라 명조의 성이 일직 공게 비 온 디 공이 소왈 다키 작셔의 유효를 보
 니 엇더 니 먹은 다 엇지 이 제야 날을 보 나 뇨 성이 비사왈 작일 주육을 과이 취하야 존견에 비
 옴지 못하 오니 황공 하야 이 다 공이 혼연이 웃 더라 원티 진성의 취한 바 미녀는 곳 교주라 음
 녀 니 진짓 시 녀의 복식으로 성의 취함을 타나 와 그 풍정을 도도와 임의 음욕을 처 온 지라 암
 회 하야 도라와 일노 좃츠 틈을 타나 와 교리 함이 성이 오히려 년 소풍정으로 각 리의 무류한
 중 절식 소아로 만나 무안 심야의 자로 왕리 하니 엇지 물 니 처리 오자 연 침셔의 절기 더니 교
 량이 점점 숨어 단니 물 평상이 하고 후미 주가 호로 가져와 권하는 지라 성이 일너 왈 다키 당초
 취중의 녀를 취하야 님의 정을 미 존 후는 피차 무신 처 못하 리니 상담의 이르기를 곳 비가 길
 면 드 된 다 하는 지라 오 리 면 엇지 남이 모로 리 오 만 일 닐 타는 즉 심히 무안 하고 사 세는 논 하
 며 또 무사 기어 려 오 니 차 후는 정을 곳 처 나 오 지 말 나 교량이 붓그 리나 좋 좋 다 니 니 성이 그

형사를 교스 이 녀 겨 당 초 갖가 이 함을 뉘 웃고 도로 허민 망이 녀 기 더 라 옥 주 쇼저는 부 천 계
 삼시 문안 밧고 심실의 중용이 처 하야 성 현셔와 녀 공의 잠심 항고 계 스를 거 릿세 미 업 스 나
 가 중사를 전 연 니 모로 교 주 의 형 스 근 다키 더욱 괴 이 항니 쇼저 한 심 민을 항야 범 스를 볼 만
 항고 다 만 화 과 를 상 히 오 지 말 고 조 항 되 교 주 일 호 도 정 이 업 스 미 미 양 혼 단 을 여 흐 며 빅 스
 의 새 러 외 디 함을 항로 갖 처 항는 고로 셔로 봄 이 드 무 러 쇼 형 스 를 아 지 못 항 거 날 교 주 잇 셔
 는 암 투 지 심 이 더 항야 흥 중 의 리 금 을 품 으 되 쇼 저 오 히 려 아 지 못 항 고 스 스 로 형 신 을 옥 갖
 치 조 으며 금 빛 갖 치 닥 글 싸 름 이 라 잇 셔 공 이 속 병 으 로 퇴 스 항야 집 에 안 거 하 미 성 정 이 호
 상 항야 울 처 함 을 절 거 아 니 하 는 고로 일 기 동 조 나 시 를 들 여 동 녀 시 녀의 놀 며 섰 녀 피 히
 오 르고 금 현 을 잇 그 러 멀 리 노 리 니 잠 의 잇 는 셔 적 은 고로 가 중 스 를 아 지 못 항 고 도 정 스 를
 전 년 부 지 라 영 화 등 형 제 총 명 준 제 항야 허 물 를 잘 가 라 오 고 스 군 의 첨 유 항야 상 의 를 영 합
 항야 상 이 천 상 총 이 항 스 던 총 이 만 도 예 웃 들 이 라 벼 살 를 도 도와 영 화 로 병 부 시 랑 디 스 도
 를 항이 시 고 제 화 로 리 부 시 랑 디 학 스 를 항이 시 미 영 화 부 귀 혁 혁 항며 위 엄 이 도 야 에 기 우
 리 니 진 성 이 영 화 형 제 담 린 닐 제 항야 도 정 을 락 는 항며 불 린 불 의 함 을 보 미 한 심 이 녀 겨 유
 유 단 식 왈 차 인 등 이 미 구 의 화 망 에 걸 일 지 라 항 공 이 총 직 항나 혼 조 제 가 의 만 니 쇼 활 항야
 조 제 의 불 인 호 스 를 아 지 못 항니 반 다 시 과 시 의 화 를 보 리 니 가 이 오 리 머 무 지 못 하 리 로
 다 항야 단 식 항고 과 장 의 출 린 고 조 항나 당 년 몽 사 려 항야 심 오 세 전 은 말 신 치 말 나 항던
 고로 썩 를 기 다 리 며 울 을 이 근 심 항 더 라 이 러 구 러 중 양 가 절 를 당 항야 월 식 은 만 정 항고 국

화향과논사람을침노하니충성이 소래하야이향각의심회를돕는다라감음초창하야적
 적히안저시를저어고금의붓기를은전케하더니홀련미인니홍군취삼으로압하다다라
 웃거날성이저셔이보니이곳교랑이라성이정식왕니현가를동하거날네엇지나와나의
 정신을들네나노교랑이소왕낭군의현가곡조여원여모하야슬픈되뜻인즉하쥬속녀를
 스모하야촌정이그옥하니이곳제순의남풍시아니오상여의봉구황이라상여는문군의
 몸을위하야소아편을읍나노이제랑군이죽아편을나리고성식을유련하니첩슈미천
 니나우음을참지못하나이다성이추연탄왕니엇지죽아편을이즈리요만는평성지한이
 만아한뜻즐성각하면저근원이교집하야금일관전편을을퍼심회를풀미라교랑왕연죽
 랑군의마음은적의무심하니잇가성이소왕너천인이감이날을절절이편논하나노니본
 디고고일신이문하에의락함이여러히라네의로야규중옥녀로니게허하스님의남빙한
 모양이나지우금슈년에이르러성천할과약을두지아니하오만일슈이혼인을일위이집
 성관에처함이아닌죽니오리머물미가장무익한지라헛도이속약을의지하야일신쥬착
 이난처하니풍청월벽호추경을당하야각회무류하고로우연이관저편을푸나네엇지감
 히조롱하리요교랑이디왕첩이미천한소회잇셔말함이러니이러듯하시니황공하야이
 다첩이님의랑군의관저를납었스나타일랑군이납신령달하스부귀하심의를첩을길리거
 두시리잇가성이소왕네엇지망영된말을하나향일즉시풍정을유회하얏스나본디길게
 거나릴뜻시아니오여러하비절귀들의논할비아니니춘풍도리호점을일위혀지못할

지라너가은빅우를일직구하야조히살고날를조금도거리세지말나교랑이악연체를알
 드르니충신은불스이군이요렐너난불경이부라첩슈미천이나고인의절을스모하거날
 임의허신하얏스미일성을우러々맛칠저라엇지신세를의논하리잇고성이준절이썩지
 저왕네어이말이방자하노하니교주양々하야일야는교티를먹음고시녀의민도리로진
 성을공이부르신다하고어두운밤에그림자를빌동말동하코바로니당으로드러가니진
 성의익이도라을씩라짜라드러가더니홀련쥬시쇼리질너도적이든다하고니외진경하
 니공이살펴보니진성이라연교를우르니진성이쇼명으로말명하나쥬시모너님의약속
 한일을엇지고지드르리오빅판모히함이되어날이말기를기다려바로법스에고하야
 진성을죽이려하는지라진성은신세를탄식하코쳐쇼로다가나잇셔옥쥬쇼저양던탄
 왕우리부피총효과인하시고조선이인효하스엇지이러듯하스하시는고진성이비록타
 인이나속약이잇고니집에잇는사람이라엇지화를만나게하리오하코일축화전을퍼고
 글을들다가심복시녀로하야금진성의게보이니라

第三回 玉珠投淵龍馬負去 花階洒掃鸚鵡來護

옥주가연못세세지니용마가지고가고
 화계를쓰니잉무가와셔호위하다

옥미편지를바다가지고셔당에너르미성이옥미를보고급문왕너는하인이완디혼야에
 었지나와무삼말을하랴하나노옥미품속으로셔일봉셔를니여왕천비의쥬인소서긴급
 혼사고로상공의서장을붓치실씩감히진현하나이다성이더옥경의왕너의소서누구노
 옥미왕쥬공로야의장녀시니이다성이바다보니필법이비등하야만편쥬옥이라그글에

하얏스되

하가 규슈난감허슈항셔를진공조좌하에올나니자고로남녀유별하고규리에글를
 의간에전파함이불가호되사제마지못하야혐의로오며교히너지마르쇼셔첩이심
 규오녀로가엄의명을받조와진사에성명을바드니비록륙례를행치못하얏스나진씨
 의사람이라신명에득죄하야무망지설로군조게되화박두흔지라첩이불행하야조실
 자모호고죽아지통을가져혈々이남미엄부들의지하얏더니가군이군의알신양죽하
 신지누년에첩으로써군조게의탁하고백년을의약하거날불의에풍파이러나불칙디
 화군조일신에밋게됨으로천만부득이괴미를고하나니일직이오가를피하스고려를
 신중하스필경을보스첩을받괴다르시리이다군이맛당이성명을변하시고일명을
 피하쇼셔오직부명을받드러싱스궁달들군자게정하얏스나황련이오문을의이스천
 만의외에일이이러나니첩이참괴함이압셔고슬푸고원함이의연이흥금에엄역하야
 초원니지향하기어려오나다만디강급함을당하야안연이잇지못하오미능히다고달
 치못하나이다군조는원컨디살피스천쳐하쇼셔하얏더라

진성이보기를맞치미디경의후하야다시보너그셔찰중에격절한사의감복쳐창하야어
 린다시안조말이업더니가장오리게야비로소셔간을거두어낭중에직시감초오고이에
 옥미를디하야차탄하야갈오디나진제벽이시운이괴구하야영정고하고혈々무의한
 자최자못이곳에머문지쥬년에악장의여산지은이호티하거날이제하소제이갓치구성

하니디은을초성에갑홀길이업는지라엇지니홀로살기를담하야너의소져에사성을타
 연이하야거리세미업스리오이는큰불의요비는망해하는무신회행지인이라여초하코
 엇지제상에룡납하리오이제너소져로한번자별할지라잠간외와상의코조하나니네급
 히소져에침실을가룟치라니쳐음으로너를보미이왕요녀의게속음이잇난고로경동함
 이업지아너터니엇지여초사괴잇슬줄뜻하얏스리오옥미디왈우리소져난녀중군조셔
 니형신이어름우에서리갓트신지라차변을당하시미소져만々부득이슈셔를올렸스나
 남녀유별하고너의격절하거날심나에엇지외간남조를규중소져침실에이르리잇가만
 고불가호고우리소져불복하시리니뜻슬두지마르시고밧비말행하쇼셔성이추연단왈
 여언이올흐나셔중에이른바경권이잇스니니엇지너의소져에사성을관념치아니코표
 연이홀로가리오소져조경이사할뜻지급하나니천히외와가치아니물히후코조하나니
 딸니가룟치라옥미디왈후문이갑기바다갓고분장이싸근듯하니상공이비록드러가시
 나々오기어려오니출립에는체함을싱각하쇼셔성왕이논네의념할비아나々인진만하
 야라옥미마지못하야성을모셔드러갈식원문이중첩하고논간이굴곡하더라이오소
 저침소영춘각에너르니사창에축영이명랑하고인적이적여한디소져의서성이미々하
 야옥을마오는듯하거날옥미왈소비먼저고하리이다하고지기를열거날성이조초납실
 하니초는소져조그납실함을회각할가함이라옥미장녀에서소제납기함을고하고금
 병을밀미일위선낭이홍상치의로축하에단좌하얏거날성이나아가을홀디소져문득디

경하야 책을 읽고 미익스 무언하니 옥미당님이 암실에 북아동정추월이며 부상홍일갓트니
말썬 빛나미 풍전옥슈갓거 날안모에 성덕영귀어리엿스니 성이 일견에 혼안하야 말벗치
기어렵더니 소저문득님님월첩이님의 소회를 고함이 잇거 날엇지 남녀 유별을 생각지야
니시고 심야에 돌납하시뇨 심이 경피하도 소이다 성이 흠신되 왈 소저의 지교하신 유찰를
밧즈와 보니 성을 위하야은혜로이 구하시며 티산으로 써홍모에 더지고즈하시니 소성이
엇지 소저의 사성을 관념치아니하고 홀노 피하리오 성이 이제 바로 간직피츠면 목을 모로
리니 천덕지하에서로 초질길이 업난지라 성의 성명을 소저의 직히스진씨의 사람인 줄 밝
히시니 한번셔로 보와 소회를 피미을호니이또한 권도라 엇지 참아 무단나도라 가리오
소저스 왈 군즈의 후정은 감스하나 피츠성례천이니라 문남녀 혼야에 상통함이 비례오하
물며 사그 급한지라 유유지지하야 불칙지화를 당하시면 회지막급이라고로 스과를 미리
등함이니이다 성이 단왈 성이 피주하야 생천을여회고가 산이랑 같으며 노복이분산하미
의지할길이 업난고도로에 방황하며 스희에오유하야정이 신체를의지할곳지업셔망
연하든 초에하날이살피스디인을 만나어엿비녀기스전후니력을 무르시미가 천명짜와
전후지스를 제제이고달하온죽문파에디경티회왈너의 부공이 전일천절한 벗지러니 발
셔황턴귀이되고너의 신체가이러듯되얏스니 엇지한심치아니리오그러나 영용호걸이셔
를 만나지 못하면 초야에 곤궁하나니 조금도 슬허말고 날과한가지로 지니면 엿더하노하
시며 성을다리시고 귀되에 이르러 사랑하심이 천즈에나리지아니시며 또한 소저로되

약호정하스 슈빙례 폐하야 귀되에 유한지여러하라 셔를 기다리더니 때맞춤삼춘이라 춘
흥을 못이그여마음이 산란키로즈 단즈가하야 단금할적교녀또나와여차차하기로 성
이아조거절하야 물이 쳧더니 제양앙이도라간후모일은 성을보고 상공이 부르신다하거
로잇그러너면에 드러가나여 초흥계로 성을모히하야이러듯화되엿스니 엇지 혼흥고자
작지얼이아니리오년이나왕스를 일카라 쓸디업거니와 바라건된 소저논이 제 환란 위급
지시를 당하야 성을 좃츠방신을보존하야 선부인 위령을 위로하시고 디인의 불효를 삼가
미효의 당연하며 소성이또한 님몸만피하고 소저를고렘치아난죄를 면하겠시니 원소저
논길리성가하야 거취를한가지로하스이다 소저청과에 만안슈석으로 공슈청스왈이
왕지스논언두에일것지마르소서 첩이님의던디신귀의 투앙을 밧즈와 부형게간치 못하
고골육이 불화하야이런 번란을 만나니사라시미일작쥬착이업고 군즈의 누덕을기치며
자신의 취명이동히슈를기우려도다 씻지못할지라찰하리고요한도장을직히여일루잔
천을결하고제상시비를이즈며 혼백이즈모를싸라궁던지통을이즘이원이라 규중자취
를어디가벗치리오한번잡히면죄명을어디싸호리오일신의참누를시러일명을쓰코즈
하되죽지못함이니 군즈한갓저근신의를써리면신분을더릴뿐이오랑피무비하니셀니
형하시고 더디지말나 첩의서중두가지를저바리지마음소서 타일에소망을일위주시
면은수결초하리니바라건던천만보중하소서 성이청과에님의그뜻지구음을알고다시
만단키유하야자가를 좃차일명을보전하얏다가피인이셔다른후부녀련을완정함이

티의 당당하고 절효완전할 바를 천서만단으로 뜻지 아니하되 소저 일양 뜻슬 끈치지 아
 나이의 청스 왈근 저 비 록 이 리 이르시나 첩이 가 간 불미 지스를 근저의 누동하고 부형을 간
 처 못하며 수빙한 남자를 좃차 감이 부모를 반한녀가 되고 근저를 싸라 규중 자 최를 음분하
 난저 최되리니 결단코 근저의 말삼을 주지 못하리이다 성이 또한 그 뜻지 구든 줄 알되 성이
 도라간 후 반다시 무심치안아 무삼변이 있슬지라 이의 다시 말하야 왈 성이 이 제 일오 문성
 의 몸을 위함이 아나 오 소저의 신제저 단함을 도라보와 인륜을 온전코저 함이 오다른 뜻지
 업거날 소저고 집성심은너 모 박 절한 뜻하오니 성의 간언을 너모 거 절치 마르시고 지삼
 성 각하야 성의 바라는 뜻슬 저바리지 말나 소저 청과에 정식스 왈 근저의 말삼이 한갓첩일
 신을 위하신다 하나 이 논불가 하심이 오디 장부 처제하야 엇지 일기 아녀저를 고렘하야 디
 스를 그릇하리 오반다시 공명을 어더 님 신앙 명하야 부모게 영화 빚 낼 줄은 생각지 아니시
 고 엇지 슈빙 처녀를 잇그러 허적의 비평 할과 스류의 휴손함을 생각지 아니시나 잇고 첩이
 당당이 근저면전에서 일명을 결하야 근저의 녀를 뜻치라 언과에 삼촌 설인을 싸혀저
 문코저 하거날 성이 급히 말이며 벗들고 비러 왈 성이 복이야 른 님으로 낭저와 인연이 성권
 지라 이 제 밤비닉 홀로 피하려하나니 소저는 식로 하소서 성이 규문을 한번나 디 소저서 식
 을 볼 변하고 소저 맛 참듯지 아니시나 성의 마음이 소저를 위하야 그 옥히 함음하노이다 언
 파에 눈물을 흘니고 이러 단석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천만 보 중함을 당부하고 몸을 셋쳐
 쳐 소로도 오나 이라 잇세 소저 진성을 보니고 마음의 변되하야 단석 불이 능다 가이 의이 별

시를 지어 쓸시 흥협의 주류는 락하야 진진나 늦기니 흥년 옥미 좌우에서 서우눈물이하
 슈갓더라 쓰기를 맛치미 경보를 한디 봉하야 옥미를 맛겨 왈 너의 정심의 단중함이 고인에
 지지아 이니 디스를 너의 깨닫기나니 용심하에 이 글을 공저게 전하고 먼나 다라나 피하라
 하고 늑연 단좌 세 상양하니 사세 죽을 밧게는 도리 업는 지라 비록 살고저하나 쥬씨모저
 와 교쥬 불칙하야 흥피 홀로 음희하야 함지 킁 참 후 굿 칠 줄 명명이 지고 하고 부친이 또
 한저가의 뜻슬 아스타 문에 결 혼코저 한즉 일시 명절을 보전치 못할지라 좌스 우스 하미스
 러만 단이러니 문득 정당시 이 이르러 공의 소명을 전하거날 소저 죽시니 당에 니르니 공이
 소저를 보고 갓가이나 아오라 하야 슬전에 안치고 단식 왈 로부너를 사랑함이 제저 중에 더
 하고 로형여 실 슈할가 염여하야 진성으로 밧약하야 피차 빙물을 바든 후저를 또 홀피 출갓
 처스랑 하야 후디 함이 지극하더니 제 불칙한 형실로 엇지 지상가 중당을 심야에 돌납하야
 규중 처저를 겁척고저하니 인심을 불가척이라 제 만일 잇던들 잡아 죽이고저하얏더니 엇
 지 알고 도주한 지크게 분히 하도다 소저 디 왈 가간 번고는 불가스 문어타 인이라 소녀 성 각
 하옵건던 큰 화머지 아닐지라 엇지 한 흠지 아니리 잇고 하야 진성을 파이하스 소녀를 속하
 시미 골육의 변니 일노 좃차나미나 장차 엇지 리오 부귀는 도물의 쓰리논 비오 교만은 몸을
 망하는 중죄니 이 제 장형이 영귀함을 미더 교만하고 스 처하야 임군의 게아 침하고 도정을
 작논하나 이 곳 디 화를 취할 장본이라 맛 참히 쳐다라 곳 침이 업스면 오가미구의 과시 지 화
 를 만나 리니 엇지 망극지 아니리 잇고 복망하야는 가 중의 영육과 사치를 금하시며 부정음

비지스를 살피스 엄치하 면신의 감동음이 되어 전화 위복하야 문호를 흥기 하련너와 종시
부귀를 탐하시 면불과 슈년 너에 화이러 나 우리 누디 명문이 멸하 오며 몸을 맞치리니 야
야는 일을 생각하스 극력 금지하 시며 또한 진심을 죽이고져 하심 이불가 하심 이니 본디 진
심이 심약함이 잇스나 일직 작희함이 업스며 소너로써 결 혼하 지 슈년에 진가 빙물이 소너
신상에 머무르스니 엇지진가며 나 리아 니 리 잇고 제 만일 그 큰 일을 하야 스 죄를 범할즉 사
라 죽어 너 조의 절를 직할거시오 진실로 무죄한즉 우리 연고로 사경에 밋쳤스니 저의 위급
함을 구치아니 함은 너 조의 위부하 난도 리아 닐고로 소너과 연저의 개 밀 등 하야 피화케 하
얏스니 부모를 괴망하 고 사사 로이 저의 계통함이 만스 무척이 오나 야 사난 소너의 간언을
좃치스 거스 등을 엄히 경계 하 시고 제 형도 소너 죽은 후라도 던 자게 죄를 엇지 마르시 면 소
미 명명지 중에 우음을 먹음어 절거온 녀시 되오 리니 비록 살 고 조하 나 불우히 기름 엇는
화잇셔가 문에 디 화 불원하 리니 그 화 흥 변이 이르기 전에 부모 동괴를 간치 못 한 죄를 속고
조함이니 진심은 신의 군조라 우리 문호를 붓들고 아오를 구 할지니 부디 허치 마르시고 바
려 두소서 언파에 혀를 무려 피를 토하 고 인스를 모로 논 지라 슈시 모녀와 영화 등이 상 혼락
담하야 일각의 삼커지 못함을 한하 더니 공이 탄왈 엇지 츠 변이 잇슬 줄 알이 요 하 고 소저를
구하 니 슈시 왈 옥썬 진짓 우리 모조를 기 참에 너 흐니 우리 모조를 냐치 소셔 영화 면관 청죄
왈 소조 등이 불초 무쌍하와 골뎁의 변이 이에 밋쳤스 오니 진위를 분간치 못하 고 제 상에 용
남지 못 할지라 엄위지 하에 다스 리심을 바라나 이다 공이 탄왈 너 무상하야 조너를 교 혼치

못함이 오세 덕을 추락하 니 장 초 무삼 말을 하 리 오녀 등은 무익 지 설를 날 회고 녀아 를 구 호
하 라 만일 녀아 를 구치 못하 는 날 은 너 희 다 편치 못하 리라 녀아 희 흥 후 현 처하 리라 삼 처
사례 하 고 승 당 하 야 소저의 것히 나 아 가 편히 누히 고 약을 드리 오려 하 니 녀을 듯 고 밋지 아
니 터라 이 러 구 러 날 이 밤 으니 런지 불 예 하 스 켈 니 진 경 하 고 소 식 이 하 부에 이르 니 공 의 부
지금 의 를 닐 고 켈 하에 나 아 가 미 고 슈 모녀 소 제 죽 일 뜻 시 급 하 나 공 이 나 간 사 이 의 구 치 못
하 면 스 괴 요 란 할 가 두 려 하 더 라 공 조 비 로 소 이 일 을 알 고 경 황 하 야 급 히 정 당 에 니 르 러 보
니 형 미 소 저 침 석 에 구 러 저 녀 에 혈 적 이 가 득 하 고 인 스 를 모 로 거 날 나 아 가 붓 들 고 호 곡
하 며 낫 출 다 혀 귀 절 하 니 죄 우 급 히 구 호 하 야 위 로 하 고 연 하 야 소 저 를 구 하 되 인 스 를 모 로
논 지 라 소 저 이 에 호 절 하얏 더 니 문 득 공 중 으 로 서 일 위 선 녀 나 려 와 소 저 를 보 고 압 히 서 저
비 하 고 공 슈 하 야 왈 첩 이 사 에 선 부 인 명 으 로 나 조 를 되 시 려 왔 스 니 급 히 가 스 이 다 하 거 날
소 저 선 녀 를 쓰 라 한 곳 에 니 르 니 전 각 이 표 묘 하 고 운 창 무 녀 이 황 홀 한 가 온 디 일 위 부 인 나
놈 히 안 잤 스 니 아 는 모 부 인 이 라 급 히 나 아 가 계 하에 서 저 비 통 곡 하 니 부 인 이 급 히 소 저 를
넋그 러 좌 에 안 치 고 락 루 위 로 왈 너 희 아 직 익 운 이 미 진 하 야 이 권 위 화 를 만 낫 스 나 후 에 반
다 시 귀 할 거 시 니 너 모 의 상 치 말 나 소 저 녀 금 공 슈 왈 모 천 은 다 시 금 의 조 저 덕 을 드리 오 스
후 스 를 잇 게 하 소 서 부 인 나 허 락 하 고 사 미 안 호 로 서 한 약 을 닐 여 먹 이 고 이 러 나 미 오 운 이
영 롱 하 고 다 시 부 인 을 상 디 한 지 라 정 신 이 황 홀 하 야 써 다 르 미 한 씩 이 라 혀 를 무 려 상 한
거 시 여 상 하 고 좌 우 를 살 피 며 잔 측 이 미 사 하 고 즉 시 잠 들 며 흥 년 옥 미 연 일 식 왔 난 지 라 곤

하야조를 거늘 생각하되 일시 탄몽이면 미들비아니로 되션녀에 명교희미체아니고 교약
 을 먹이시더니 상한 데 여상하니 가히 헛되지 아닌지라 죽으미 부모 유체를 상히 오미 더욱
 죄니 잘아 리몸을 슈심에 잠겨 형체를 온전히 함이 만전지계라 하고 죽시의 상을 정제하고
 곳쳐 생각하되 니이에 죽으미 그 성명을 신변에 진혀 도라가의 락을 삼으리라 하고 드터여
 혼서와 옥환을 니여 품고 가만니 후문을 나몸을 슈심에 더지니 홀연 공중에서 황룡을 나리
 와 자기를 리와 반공중에 이니 정신니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나리미 눈을 드러
 보니 서역 곤륜 산제삼봉 진원법선관이 라하더라 일위도 식닐오되 일직서셔를 박남하
 야학술이 고명하니 니말이 허탄함을 고하니 기련이와 디강닐르나니 니는 전성의 니웃
 들제즈미 화선이 라니니를 다리고 상제기 조회하니 옥데너의 옥모를 사랑하스이의 한안
 전에 근시케 하실시 문곡선관과 일시바둑두어 그 조를 보실시 문곡선니미 화선과 소교
 심후하야 기국의 승부를 닳도며 서로 회롱하야 왈 우리 양정이 교밀하니 인간에 한가지로
 하강하야 부부되여 보면 쾌하리라 미화소왈 년즉그디는 남즈되고 나느니 되여셔로 만
 나미가 하리라 그디용모하미려하니 니안히를 삼고저하노라 옥제드르시고저의 제령이
 동할에 로하스 인간으로 쳐하하니 서로 남녀되기를 듯도노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벌
 하라하시니 문곡이 바둑을 이권지라 이러무로 문곡은 진공즈되고 미화선은 군갓치 되었
 다가 하씨의 개강성하야 느즈되니 옥제양정을 통하하사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만칭간고
 를 적게 하나 지품성덕이 출중하야 런의를 감동케 함으로 문명이 남신양명하야 왕후장

상의 부귀를 어드며 네 비록 금세너자나 전성에 남자라 공명을 일위한 번련하에 회형하야
 지귀를 폐게 하시니 일념의 너를 잊지 못하야 니게 구함을 청할뿐 아니라 선분이 있는고로
 금일 구하야 도라왔나니 네다시 인간에 뜻시 잇셔 밤비도라가고즈하나냐 소제황연비사
 왈 소아도 홍진에 속인으르 연회지중에 못치여 일작이즈모를 여회교육아지등을 품어지
 니옴다가 다시 골육지변을 만나 인체에 지성할 뜻지엄서 일신을 슈중에 더지고즈하옵더
 니이제 선성의 거두심을 남스오니 엿지다시 흥진에나물바라오며 철마의 영육을 참네코
 즈하리잇고 마는 문회 불행하야 제형이외도에 드러 함권락세하니 미구에 망신지화를 만
 나로 부를 보전치 못할가 근심하옵나니 북망로 선성은로 부의 성명을 보전케하소서 연즉
 네 무예를 비왔다가 나라의 공업을 세우고 문호를 보전케하소서 이라나다시 지비하고
 왈 선성의 말씀갓호여로 부를 구하고 가정을 회복하야 문호를 붓드러 창립홀진디장명
 을 바려도라와다시 선성을 피셔 선술을 비호고저하나이다 도식웃고사미로셔 일습도의
 를 니여 슈며 변복하라하고 법호를 진호선지라하니 소저비스하고도의 를 기착한 후선성
 게 비례하니 여화위남하야 선가제즈되었더라 견원도스소저를 기착하야 다리고 당중으
 로도라을 석산중경치호란하야 금당승디오별유선계 특출쇄락한도선기스라라 정연을
 향하야 눈을 들미 일기미 불이 현연한 선동이 라나와 비례왈스 뷔어니 곳에 가홀노게시더
 니잇고 되션왈요망이 구지말고 후당을 슈소하야 츠다를 니여 위로하라이의 성선을 볼너
 죄를 슈더라 비옥로의 향을 피오고 산호셔완의 만권서책을 싸하하고 벽상에 현금을 거러는

지라 성선이 못 오디 성선 제 조만 할 듯 오니 엇지 동조 일인 썩이 리 잉고 성선이 답왈 제
 지본디 만치 안나 십여 인이 로디 출립 진퇴의 니 명을 기다 리 미 비 록이 곳에 왔스나 진제 속
 티를 면치 못하 니 본적과 다른 지라 모든 제 조 혼점 지 못하 는 고로 부르 지 아 낫노라 성선
 이 돈 슈홀 분이라 이 육고 동조 육종의 초를 붓고 선간과 이 혼과 실을 나 아 오니 성선이 바다
 맛보미 구종이 청상하 고 향과로와 정괴 쇠연하 며 신흔 니 경청하 니 선가 경익인 줄가 이
 알이 러라 도 쇠동조로 하야 금인 도 하야 동벽 석실에 처소를 청하 니 성선이 비스하야 왈 제
 지선성의 구활하 신덕을 이 의 이르러 스오니 밤비로 부구 홀도를 비화 지이다 성선이 소왈
 네장성 불스하 는 도를 비호고 조하 나나 회형 현하 는 무예를 비호고 조하 나나 성선이 디
 왈 소저로 부구 할도를 비화 소원을 닐후 다 시스 부를 뵈셔 선술를 비화 지이다 도 쇠왈 네
 소원니 여차하 니련도 미묘하 고네 아 직진 티를 벗지 못하 앗스니 경이 슈학 지 못하 리니 명
 업시 아 직문을 나 지 말나 성선이 악년 망 단하 나 감히 다 시 청치 못하야 석실 노나 아 오니 분
 벽스 창과 옥난 주함이 극히 정묘 화려하 고 방종의 포진상 락과 문방제 구족히 정제하 더라
 성선니 고요 정좌 러니 명조의 동조 송엽과 향다 를 가져왔거 날 성선이 스래 왈 선성의 고흔
 하 시난은 혜엿차하 시나 소망이 에잇지 아나 성부의 뜻지 급하 니 음식의 뜻지 삭연한
 지라 빌건 맨 사형은 선성게 알외라 병셔로 셔슈이 교학게 하 시면 만세를 그 음하야 축슈하
 리이다 동조 웃고 드러가 더니 이 육고 나와 회보하 되그 디 아 직속격으로 진래를 씻지 못하
 앗스니 이 곳잇난 바 병셔난 비결이라 경히 못하 나니 소님이 업셔한 것고 요홀진 단 정전치

화나 슈쇄하 라하 시더이다 성선이 동조를 짜라 후원에 이르러 보니 오칭 화계 괴려 광디하
 고 총총이 괴화이 초자 옥하 앗스니 다인간의 서난 보지 못하 든 비러라 상운셔 무청운을 인
 하야 해풍이 은々 삽々하 니 속인의 회포더 옥뉴아 한지라 동조의 비를 주며 슈쇄기를 지
 휘하 고 또 스미안으로 조초청인 무일쌍을 주어 왈이 비록 금슈나 극히 영신하야 사람의 뜻
 즐알고 응디 민첩하야 스령이 죽히 될지라 연이나 성이 맑아 스람의 그 큰일 곳보면 반다 시
 바리고 가나니 또 한적간이 되난 지라 스부성선을 주스 격회를 위로하야 스후함을 삼게하
 시더이다 성선이 스래 왈이 갖치 영조로 셔슈시니 더욱 감격하 나다 만 것드려 사랑하 다 가
 맛참니 님즈를 직히 리잇가 동조 왈이 난홍절의 밍죄라 만일 성선이 큰 죄잇슬진 디 비록
 바리고 조하 나물너 가지 아 날 거시오 만일 덕이 부족하 면 반다 시잇지 아나 리니 차난 제게
 잇지 아나 성선에 게잇나 이다 초죄일 명은 의 죄라하 니 성선이 바다 슈중에 회롱하 니 완연
 이 반기미 잇셔 맑은 소리로 우지져 죄와 에 떠나 지아 나 떠라 동조드려 간후 성선이 뷔를 잡
 고 화계를 쓸시 봉황난 학이 쌍々이 무리 지어 화초스이에 길드 리미 원앙비취 금은계 슈우
 히셔논 일며 괴금이 취가 득하 앗거 날 성선이 잉무다려 문왈 초서 가 기쁜 가을이라 상풍이
 높하스니 초목이 요락할 거시어 날이 곳은 엇지 하야 슈목이 스올미 업고 삼춘 화석을 띄엿
 나뇨 잉무왈 우리 스뷔상 제 디 선이라 비 록이 곳에 적거하야 제시나 선술지법이 높하 사히
 룡궁 괴화이 초와 셔산 심곡에 괴초이 슈를 모화장성하 심을 위업하 시니 자코로 사시경
 물이 변함이 업스니 이다 성선니 듯고 괴이 허너 거더라 이에 정신을 가다듬어 반일을 보고